

## 『화한역어』 類目の 의미 속성 연구

—釋天·釋親·釋女를 중심으로—

도 해 속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華漢譯語(화한역어)』의 유목별 어휘 수록 체제를 검토하고, 유목과 표제어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유목의 의미 속성을 고찰하고, 상호간의 상응도를 파악하였다.

『화한역어』의 ‘釋○’라는 형식의 類目は 『爾雅』의 19항목을 본뜬 것이지만, 조선시대 사회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6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본고는 『화한역어』의 유목과 소속된 표제어의 의미 관계를 층위별로 분류하고, 그 상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유목의 의미 속성과 부합하였으나, 극소수는 주관적이거나 상응성이 낮아서 다른 유목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런 일련의 고찰을 통해 『화한역어』의 사전학적 가치와 이 책에서 분류한 유목의 속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고금석림, 화한역어, 유목, 의미속성, 상응도

## 1. 머리말

『華漢譯語』는 조선시대 이의봉(李義鳳, 1733~1801년)이 1789년(정조 13)에 편찬한 현존 최대의 동양어사전인 『古今釋林』의 한 편이다. 이 책은 현재 연세대에 용재문고본, 서울대 규장각에 두 종류 등 모두 세 가지 판본이 현전한다. 그 가운데 용재문고본이 이의봉이 편찬하고

필경사가 필사한 家藏本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용재문고본 『고금석림·화한역어』를 저본으로 하였다.<sup>1)</sup>

『화한역어』는 근대 중국어를 한국어로 풀이한 일종의 中韓辭典으로, 기존의 다양한 문헌에서 4,082개의 표제어를 수집하였다.

『화한역어』전편의 편찬체제는 일차적으로 표제어를 자류별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의미 범주에 따른 類目別로 해당 어휘를 수록하는 방식이다. 즉 자류별을 기본으로 유목별 배열을 병용하고 있다.

표제어의 조어 글자 수에 따라 분류한 대표적인 사전은 퇴계에서 비롯된 『어록해(語錄解)』<sup>2)</sup>이다. 그 후 儒家類나 小說類의 각종 '어록해'는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화한역어(華漢譯語)』의 '釋○'라는 의류(義類) 명목은 중국 최초의 사전이라 할 수 있는 『爾雅』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그러나 『爾雅』에 비해 당시 다양한 사회 분야를 반영한 새로운 유목을 건립하였다.

본고는 『화한역어(華漢譯語)』의 釋天·釋親·釋女 등 3종 유목에 소속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 유목과 표제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그 층위와 상응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유목의 의미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고금석림』은 연세대 용재문고본<고서(용재) 106 0 -3~20>; 규장각본(奎 1225 3), <古 3916-1> 등 세 가지 판본이 있다. 그 가운데 용재문고본은 이의봉의 다른 저서인 『北轅錄』·『東國山川志』·『서원록』 등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北轅錄』에는 이의봉의 초명인 '李商鳳, 字인 '伯祥' 등이 장서인으로 찍혀있는데, 이 책이 이의봉의 가장본임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2) 竹越 孝(2011)는 『어록해』가 최초의 중국어구어사전이라 판단하고, 鄭養의 『어록해』(1657)·南二星(1669년 개간본)과 일본의 『語錄解義』(1675본, 1681본)를 비교한 결과, 『語錄解』의 자수별 배열과 뜻풀이 방식이 『語錄解義』의 체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하였다.

## II. 『화한역어』 표제어 수집과 수록 체제

### 1. 표제어의 수집

김태우·도혜숙(2025)에서 표제어의 수집 대상 문헌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수집한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사전류: 『훈몽자회』(1527) · 『노걸대언해』(1670) · 『박통사언해』(1677) · 『역어유해』(1690) · 『한어집람자해(漢語集覽字解)』(1657 이후) · 『역어유해보』(1775) · 『한청문감』(1779이후)에서 수집한 표제어
- ②일반류: 『문심조룡』 · 『지봉유설』 · 『격치총서』 · 『목장만록』 · 『잡사비신』 · 『옥대신영』 · 『향림집』 · 『도산신문』 · 『군쇄록』에서 인용한 표제어
- ③중국 현지 채집류 : 연행사로 연경을 방문하여 수집한 표제어

상기한 ①사전류에서 인용한 표제어의 수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표제어는 여러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문헌	字會	老解	朴解	類解	類解補	字解	文鑑	
수량	247	295	195	2215	807	59	1066	4,884

②일반류에서 수집한 표제어는 ‘謎’조에 『문심조룡』, ‘裹足’조에 『지봉유설』 · 『격치총서』, ‘弓足’조에 『목장만록』 · 『잡사비신』 · 『옥대신영』 · 『향림집』 · 『도산신문』, ‘媽媽’조에 『군쇄록』 등을 들 수 있다. 전족을 뜻하는 ‘裹足’과 ‘弓足’조에 무려 7종의 문헌이 집중되어있다. 이에 속하는 표제어의 인용 대상 문헌은 다음과 같다.

4 비교문화연구 제76집(2025.10)

대상문헌	유목	자료	표제어	수량	기본의
지봉유설(芝峯類說)	釋形	2	裹足	1	전족(纏足).
지봉유설(芝峯類說)	釋食	2	素兒	2	술.
언칭(言鯖)	釋親	2	公公	1	할아버지.
언칭(言鯖)	釋親	2	哥哥	2	형.
한서(漢書)	釋宮	2	煙窓	1	굴뚝.
한서(漢書)	釋名	3	家生子	2	노비가 주인집에서 낳은 자식.
고조기(高祖紀)	釋品	2	無賴	1	한가히, 또는 부질없이.
군쇄록(群碎錄)	釋親	2	媽媽	1	아내.
당육전(唐六典)	釋獸	2	課馬	1	암말.
도산신문(道山新聞)	釋形	2	弓足	1	전족(纏足).
여씨춘추(呂氏春秋)	釋親	2	公公	1	할아버지.
공부시화(貢父詩話)	釋話	3	交不着	1	(키가 작아) 사귄 수가 없다.
묵장만록(墨莊漫錄)	釋形	2	弓足	1	전족(纏足).
문심조룡(文心雕龍)	釋言	1	謎	1	수수께끼.
비신(秘辛)	釋形	2	弓足	1	전족(纏足).
설문(說文)	釋名	3	家生子	1	노비가 주인집에서 낳은 자식.
시경(詩經)	釋宮	1	所	1	천 호(戶)가 모여 사는 마을.
연변로(演繁露)	釋言	2	謎子	1	수수께끼.
옥대신영(玉臺新詠)	釋形	2	弓足	1	전족(纏足).
자휘(字彙)	釋地	2	原籍	1	본관(本貫). 원적(原籍)
잡설(雜說)	釋獸	2	課馬	1	암말.
주례(周禮)	釋名	3	家生子	1	노비가 주인집에서 낳은 자식.
철경록(輟耕錄)	釋名	3	家生子	1	노비가 주인집에서 낳은 자식.
포조집(鮑照集)	釋言	2	謎子	1	수수께끼.
한무고사(漢武故事)	釋親	2	哥哥	1	형.
향림집(香奩集)	釋形	2	弓足	1	전족(纏足).

③중국 현지에서 채집한 표제어는 “按余之赴燕時”, “按余之赴燕也)”처럼 “내가 연경에 가서 직접 청취한 것에 따르면”식으로 수록하였는데 모두 13개이다.<sup>3)</sup>

## 2. 표제어 수록 체제

### 2-1. 자류별 배열

『화한역어』는 4,082개의 어휘를 글자 수에 따른 자류별로 배열하여 수록하고 있다. 각 자류별 표제어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류별	一字類	二字類	三字類	四字類	五字類	六字類
표제어 수	95	2,517	1,219	223	25	3

이런 자류별 배열은 『어록해』의 방식을 연용한 것으로, 『화한역어』의 사전적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구비조건이다.<sup>4)</sup>

### 2-2. 유목별 배열

#### 2-2-1. 유목의 모방과 확장

『화한역어』는 일차적으로 표제어를 자류별로 분류하고, 다시 ‘釋○’ 형식으로 의미 속성 내지 영역에 따른 다양한 類目別로 해당 어휘를 귀속시키고 있다. 이의봉은 표제어의 분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3) 李商鳳(李義鳳의 초명)은 1760-1761년 燕行使의 일원으로 書狀官인 아버지 李徽中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다. 그 당시 수집한 현지 중국어를 “내가 연경에 갔을 때(按余之赴燕時/按余之赴燕也)”로 기재하고 있다. 즉 下程(하정), 弓足(궁족), 蠻子(만자), 房官(방관), 補服(보복), 鋼針(강침), 雪海(설해), 象奴(상노), 進不就(진불취), 歲進士(세진사), 平房子(평방자), 留養局(유양국), 大枯樹(대고수) 등 13개 어휘이다.
- 4) 강용중(2014)은 『語錄解』의 사전학적 특징으로 ①검색 편의를 도모한 자수별 배열법, ②다의어 처리와 의미 구분, ③범례와 출처 제시, ④음과 뜻풀이의 병행 등 네가지를 들고 있다. 이런 『語錄解』의 사전 정형화의 제일 요소인 ‘자수별’ 배열을 『화한역어』의 ‘字類別’ 배열이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仿『爾雅』而廣其名目(『이아(爾雅)』의 체제를 모방하면서도, 그 명목을 한층 확대하였다).”(『古今釋林·小題』)

즉 『이아(爾雅)』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시대에 따른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類目을 확장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2-2. 『이아』와 『화한역어』의 類目 비교

#### 2-2-2-1. 『이아(爾雅)』의 유목

釋詁(석고), 釋言(석언), 釋訓(석훈), 釋親(석친), 釋宮(석궁), 釋器(석기), 釋樂(석락), 釋天(석천), 釋地(석지), 釋丘(석구), 釋山(석산), 釋水(석수), 釋草(석초), 釋木(석목), 釋蟲(석충), 釋魚(석어), 釋鳥(석조), 釋獸(석수), 釋畜(석축)

#### 2-2-2-2. 『화한역어(華漢譯語)』의 유목

釋天(석천), 釋火(석화), 釋地(석지), 釋山(석산), 釋水(석수), 釋親(석친), 釋女(석녀), 釋心(석심), 釋形(석형), 釋名(석명), 釋氣(석기), 釋言(석언), 釋詁(석고), 釋知(석지), 釋品(석품), 釋動(석동), 釋學(석학), 釋年(석년), 釋事(석사), 釋物(석물), 釋官(석관), 釋科(석과), 釋文(석문), 釋武(석무), 釋禮(석례), 釋神(석신), 釋禪(석선), 釋樂(석악), 釋法(석법), 釋服(석복), 釋織(석직), 釋食(석식), 釋宮(석궁), 釋器(석기), 釋工(석공), 釋量(석량), 釋寶(석보), 釋市(석시), 釋戲(석희), 釋疾(석질), 釋術(석술), 釋數(석수), 釋儲(석저), 釋農(석농), 釋穀(석곡), 釋草(석초), 釋木(석목), 釋花(석화), 釋果(석과), 釋藥(석약), 釋菜(석채), 釋鳥(석조), 釋獸(석수), 釋佃(석전), 釋魚(석어), 釋蟲(석충)

### 2-3. 『이아』와 『화한역어』 類目的 비교

兩書는 우선 유목의 ①수량 방면에서 19와 56개로 거의 세 배의 차

이가 있다. 또 유목의 ②분야 방면에서도 『이아』가 일반어휘(고어, 상용어, 다음절어 포함)·천지와 산천·건축과 기물,·식물과 동물·인간관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화한역어』는 이에 더하여 인간류(여자·인체·성품·기분·심정)를 더욱 세분하고, 법률·학습·관직·과거·무속·상업·놀이 등 어휘의 사용 분야를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유목의 ③의미 범주 방면에서 『이아』의 유목이 ‘釋宮’처럼 ‘건축’의 명칭에다 관련된 도로·다리 등의 명칭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미 범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의 범주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화한역어』는 모든 유목에서 표제어는 복잡다단한 범주를 띠고 있다. 심지어 ‘釋學’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어휘 모음이지만, ‘工夫’가 조어 요소로 적용된 ‘沒工夫’도 수록되어 있다. 비록 ‘工夫’라는 글자로 조어되었지만 뜻은 ‘겨를이 없다’이다. 따라서 ‘工夫’가 ‘시간’에서 ‘공부[학습]’로 의미가 파생되었지만, 표제어 의미 범주와 속성의 총괄 개념인 ‘釋學’이라는 유목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양자의 차이는 고금 변화에 따른 사회 분야의 증대와 그런 시대상이 어문생활에 반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4. 소결

『화한역어』의 자류별, 유목별로 표제어를 배열한 것은 사전의 검색·편리 기능을 적용한 방식의 하나이다. 즉 우선 一字類, 二字類처럼 어휘의 조어 글자 수량에 따라 분류하고, 또 의미 범주에 따라 類目別 배치하고 있다.

즉 어휘를 검색할 때, 먼저 검색할 어휘의 해당 자류를 찾아간 뒤 추가로 난상(欄上)에 서사된 유목에 근거하면 된다. 비록 부수나 자음 색인 체계처럼 완전한 검색 시스템은 아니지만, 초보적인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할 수 있다.

특히 『화한역어』는 『이아』의 어휘 분류법을 채택하였지만, 당시 조

선의 어문생활에 적합한 더욱 세분화된 類目을 제시한 것이다. 그 類目의 의미 속성을 살펴본 결과 『이야』에 비해 의미 층위가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때로 불합리하게 귀속된 표제어휘도 발견된다.

### Ⅲ. 『화한역어』 類目の 의미 속성

#### 1. 유목과 표제어의 의미 층위 분석

본고에서는 『화한역어』의 釋天·釋親·釋女와 그 표제어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유목의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 1-1. 釋天

##### 1-1-1. 釋天의 표제어와 수량

釋天에 수록된 표제어는 다음과 같다.

유목	자류	표제어	수량
釋天	1	陬/如/竊/余/臯/且/相/壯/元/陽/辜/荼	12
釋天	2	天亮/大盡/透亮/日頭/日環/日圈/月兒/月圈/月淡/月芽/亮星/參兒/甜霜/花霜/黃風/頂風/刮風/喝風/魚鱗/火雲/霧濃/焦雷/打閃/天弓/天杠/虹橋/雙杠/打春/焦熱/悶熱/樞熱/害熱/害風/冷阿/涼快/咳早/傍早/忒早/早晚/晌午/晚晌/後晌/傍晚/起更/頭更/整更/亮鐘/晚鐘/問鍾/傳籌/敲梆/立刻/新近/先前/昨兒/年時/整年/頭年/下年/下月/單月/雙月/出月/按月/月盡/盡頭/大盡/趁早/現今/日逐/索日/寶日/專日/義日/制日/伐日/拜歲/埴倉/跑冰/溜冰/冰縷/冰凌/冰牌/冰酥/簷凌/滑趾/浮凍/小盡	87

유목	자류	표제어	수량
釋天	3	日平西/日頭炷/日欄風/羊角風/旋窩風/倒捲風/風頂住/風平了/風刮了/月欄雨/濛鬆雨/連陰雨/陣頭雨/傾盆雨/過路雨/瓢倒雨/雨起泡/雲花搭/雲綻了/雲磨响/瞿耳雷/天鼓鳴/露水閃/下濃霧/米心雪/鵝毛雪/黑朧朧/東開了/早早的/直至晚/黑地裏/坐堆子/五更天/大前年/整年家/本命年/屬相年/上半月/頭一日/大前日/外後日/益後日/續世日/要安日/玉宇日/六儀日/不將日/鳴吠日/十刺天/散百病/龍擡頭/東塊子/日天壺/冰酥了/火絨草	53
釋天	4	天氣刺叉/冰凍鼓起/長天老日/日頭發紅/日頭壓山/沙被風淤/敢是下雨/下雨起泡/水漲發洪/霹靂火閃/電光閃爍/米粒子雪/大盡小盡	13
釋天	5	日頭這般高	1
			166

총 166개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2자류가 87, 3자류가 53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화한역어』 一字類 · 釋天의 표제어는 『한청문감』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원천자료는 『爾雅 · 釋天』이다. 즉 아래에서 제시하는 月名과 관련된 표제어는 바로 『爾雅 · 釋天』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爾雅 · 釋天』에서 말하길:

“月在甲曰畢, 在乙曰橘, 在丙曰修, 在丁曰圉, 在戊曰厲, 在己曰則, 在庚曰室, 在辛曰塞, 在壬曰終, 在癸曰極。正月為陬, 二月為如, 三月為病, 四月為余, 五月為皋, 六月為且, 七月為相, 八月為壯, 九月為玄, 十月為陽, 十一月為辜, 十二月為塗。”

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화한역어 · 釋天』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	독음	교감정본	번역	뜻
陬	추	『漢清文鑑』正月	『한청문감』:정월	1월
如	여	『文鑑』二月	『한청문감』:이월	2월
病	병	『文鑑』三月	『한청문감』:삼월	3월
余	여	『文鑑』四月	『한청문감』:사월	4월
臯	고	『文鑑』五月	『한청문감』:오월	5월
且	차	『文鑑』六月	『한청문감』:육월	6월
相	상	『文鑑』七月	『한청문감』:칠월	7월
壯	장	『文鑑』八月	『한청문감』:팔월	8월
元	원	『文鑑』九月	『한청문감』:구월	9월
陽	양	『文鑑』十月	『한청문감』:시월	10월
辜	고	『文鑑』十一月	『한청문감』:십일월	11월
荼	차	『文鑑』十二月	『한청문감』:십이월	12월

### 1-1-2. 釋天의 의미 층위

이 유목에 수록된 표제어의 층위는 최상위가 釋天이고, 의미 범주가 월령·해·달·별·대기·날씨·시각이며, 그 아래에 각각 陬(정월)·日頭(해)·月兒(달)·亮星(셋별)·頂風(맞바람)·天亮(동틀녘)와 같은 어휘가 소속되어 있다.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釋天

- ├─ 月令·月名 (달의 이름·월별 별칭)
  - | ─ 陬(정월), 如(이월), 病(삼월), 余(사월), 臯(오월),
  - |     且(유월), 相(칠월), 壯(팔월), 元(구월), 陽(시월),
  - |     辜(십일월), 荼(십이월)
- ├─ 天文 (太陽) (태양·기상현상)
  - | ─ 日頭(해), 日環(日圈)(햇무리) ...
- ├─ 天文 (月) (달·기상현상)
  - | ─ 月兒(달), 月圈(달무리), 月芽(초승달), 月淡(달빛이 옅다)

- ├─ 星象 (별자리)
  - ├─ 亮星(쌍별), 參兒(삼성) ...
- ├─ 大氣 (雲/風/降水/冰雪) (대기·구름·바람·강수·빙설)
  - ├─ 雲(구름): 魚鱗(물고기 비늘 같은 구름)
  - ├─ 風(바람): 刮風(바람 불다), 頂風(맞바람),
    - 黃風(모래바람·돌 날리는 바람)
  - ├─ 降水(비·눈):
    - ├─ 霜雪(서리·눈): 甜霜(무서리), 花霜(상고대)
- ├─ 雷電 (천둥·번개·전광)
  - ├─ 雷聲(천둥소리), 電光(번개) ...
- ├─ 時刻·天文時刻 (시간·천문 시각)
  - ├─ (동틀녘·해질녘)
  - ├─ 天亮, 透亮 ...

### 1-1-3. 釋天의 속성

『화한역어』의 釋天에는 총 166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해·달·별·구름·바람·비·서리·번개·시각 등 천문·기상·시각 등을 포괄한다.

釋天에 수록된 표제어는 유목-중간범주-하위범주-개별어휘라는 층상의 위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천체와 기상과 시각’ 및 그것과 연관된 ‘사람의 행위’를 벗어나는 표제어는 많지는 않다.

그러나 喝風(바람을 마시다→끓주리다), 趁早(일찌감치 하다), 害風(바람을 쐬다), 風頂住(바람에 가로막히다) 등 표제어는 ‘風’자로 조어된 것일 뿐, 釋天의 기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釋天에 수록된 표제어의 대부분은 천문·시령·기후·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釋天의 속성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釋親

1-2-1. 釋親의 표제어와 수량

釋親에 수록된 표제어는 다음과 같다.

유목	자류	표제어	수량
釋親	2	大公/老子/大婆/婆婆/公公/祖公/阿婆/外公/爺爺/爹爹/媽媽/孃孃/奶公/奶娘/叔叔/孀娘/孀子/姑娘/姑姑/舅父/舅舅/孀母/妗母/姨娘/伯伯/哥哥/姐姐/小衿/大哥/阿哥/街坊/小孀/阿嫂/妯娌/令正/下妻/填房/娘家/漢子/內讖/偏房/姆姆/令翠/孀孀/妯娌/連妗/舅子/强盜/重身/害喜/轉胎/懷耽/月子/穩婆/褥草/草把/洗三/撒賴/撒嬌/認生/啣氣/洋妗/遭害/倒腔/親嘴/福胎/把尿/爬走/會爬/會跑/孺兒/潑養/養活/喬梓/單傳/媳婦/房親/眷們/慣家/外婆/小伯/小叔	89
釋親	3	大大公/大大婆/成對人/喬家公/當家的/大娘子/正娘子/大舅子/小舅子/小產了/晚生子/私孩子/小娃娃/出息了/出調了/尿褲子/會爬麼/會挪步/房分中	20
釋親	4	姑舅哥哥/叔伯伯哥/重山兄弟/天生一對/一母所生/露水夫妻/房分兩姨/七大八小/啞的假乳/豚養息婦/養老女婿	10
			119

총 120개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2자류가 91, 3자류가 20, 4자류가 10개이다.

1-2-2. 釋親의 의미 층위

이 유목에 수록된 표제어의 층위는 최상위가 釋親이고, 의미 범주가 직계존속·형제자매·직계비속·친가방계·외가방계·시가·혼인·양육·유모·비혈연 호칭 등이다.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釋親

- ├─ 直系 尊屬 (직계 존속)
- │ └─ 祖父母·曾祖 (조부모·증조): 爺爺/公公/祖公(할아버지),  
大婆(증조할머니) ...
- │ └─ 父母 (부모): 爹爹(아버지), 孃孃(어머니) ...
- ├─ 兄弟 姊妹 (형제·자매)
- │ └─ 哥哥(형), 姐姐(누이), 妹妹(여동생) ...
- ├─ 配偶·婚姻 (배우자·혼인)
- │ └─ 媽媽/老婆/妻子(아내), 婦(며느리), 養老女婿(데릴사위) ...
- ├─ 本家 旁系 (친가 방계)
- │ └─ 伯伯(큰아버지), 叔叔(작은아버지), 姑姑(고모), 孀娘(숙모) ...
- ├─ 外家 旁系 (외가 방계)
- │ └─ 外公(외조부), 外婆(외조모), 舅舅(외삼촌), 姨娘(이모) ...
- ├─ 婚入 親族 (배우자측 친족)
- │ └─ 小伯(시아주버니), 小叔(시동생·삼촌) ...
- ├─ 乳母 (양육·유모)
- │ └─ 奶娘(젓어미), 奶公(젓아비)
- └─ 養育(자식출산양육)
- │ └─ 尿褲子(기저귀), 把尿((아이를 안고) 오줌 누이다)
- └─ 一般 稱呼 (비혈연/연령 호칭)
- └─ 慣家(친구)

## 1-2-3. 釋親의 속성

釋親에는 119개의 친족·호칭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데, 혈연(직계·방계)·혼인(배우자·배우자측)·양육(유모)과 관련된 어휘는 물론이고, 심지어 비혈연 호칭인 ‘慣家’까지 포함하고 있다. ‘친구’를 귀속시킬 수 있는 유목이 없고 ‘친구’는 거의 제2의 가족이므로, 釋親에 귀속시킨 것 같다.

『화한역어』의 釋親과 『이아』의 釋親은 다른 호칭도 차이가 있고, 『이아』에서는 오로지 친인척의 호칭만 다루고 있으며, 혼인·출산·양육과 관련된 어휘는 없다. 또한 『화한역어』에 수록된 표제어는 『이아』에 비해 대부분이 二音節이며, 이는 언어의 고급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釋親에 수록된 표제어는 유목-중간범주-하위범주-개별어휘라는 층위상의 위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친속 호칭과 혼인·출산·양육’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단지 친구인 ‘慣家’를 釋親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 어휘를 마땅히 귀속시킬 유목도 없거니와 ‘친구’ 역시 ‘親知’에 속하므로 의미 속성을 확대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위에서 의미 층위에 따라 분류한 결과 釋親에 수록된 표제어는 하위어가 친족과 인척의 직계와 방계, 혼인과 양육을 비롯하여 친구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釋親의 속성은 ‘친속’이 가장 적합할 듯하다.

### 1-3. 釋女

#### 1-3-1. 釋女の 표제어와 수량

釋女에 수록된 표제어는 다음과 같다.

유목	자류	표제어	수량
釋女	2	老婆/嬋家/未乳/奴家/彈的/衍衍/婁子/婆娘/梅香/妮子/喫醋/爭風/耍子/野種/打扮/搽粉/粧奩/梳粧/花翠/纍絲/鈿子/簪子/戒指/皂角/肥皂/撇淸	28
釋女	3	老鴿子/俊窠子/黃花女/紅花女/耍過得/醋話兒/影射的/望門寡/院裡走/做牽頭/耳墜兒/戒指兒	12
			40

釋女에는 2자류에 28개, 3자류에 12개 등 모두 4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 1-3-2. 釋女の 의미 층위

이 유목에 수록된 표제어의 층위는 최상위가 釋女이고, 의미 범주가 여성의 일반호칭·자칭·비칭·신분·직업·미용·장신구·생활용품 등을 비롯하여 ‘질투’ 같은 여성의 심리까지 포함한다.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釋女

- ├─ 女性 一般稱呼 (여성 일반 호칭)
  - ├─ 老婆(여자), 嬋家(여자), 野種(간통 자식)
- ├─ 女性 自稱·卑稱 (여성 자칭·비칭)
  - ├─ 奴家(여인이 자신 낮춤), 婆娘(경멸적 호칭), 老鴛子(기생 어미), 俊窠子(창기 놀림)
- ├─ 女性 身分·職業 (여성 신분·직업)
  - ├─ 彈的(음악 기생), 衍衍(기생), 梅香(여자 노비), 黃花女(미혼여성), 紅花女(기혼 여성)
- ├─ 心理·行爲 (심리·행위)
  - ├─ 喫醋(투기하다), 爭風(질투하다), 耍子(성관계하다), 撇清(좋은 척하다)
- ├─ 美容·服飾·裝身具 (미용·장신구)
  - ├─ 打扮(꾸미다), 搽粉(분 바르다), 梳粧(단장), 粧奩(화장품함), 花翠(머리꽃이), 鈿子(머리 장식), 篦子(참빗), 戒指(가락지), 纒絲(金銀실 장식)
- ├─ 生活 用具 (생활용품)
  - ├─ 皂角(비누), 肥皂(비누)

### 1-3-3. 釋女の 속성

『화한역어』의 釋女는 총 4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성의 호칭·신분·직업·용품을 비롯하여 심리와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

釋女에 수록된 표제어는 유목-중간범주-하위범주-개별어휘라는 층위상의 위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여성’과 관련된 것이다.

釋女는 여성을 상위 개념으로 여성 호칭-신분·직업-심리·행위-미용·장신구-생활품이라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호칭은 일반호칭·자칭·비칭으로 세분할 수 있고, 미용과 장신구 등 여성 생활과 밀접한 사물을 ‘釋女’에 수록하고, ‘행방(行房)’은 ‘釋事’에 넣지 않고 ‘釋女’에 수록하고 있다.

위에서 의미 층위에 따라 분류한 결과 釋女에 수록된 표제어는 하위어가 여성의 호칭·심리·생활 등으로 그 의미 범주 내지 그 개념의 총합체인 속성은 ‘여성(女性)’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4. 소결

상술한 것처럼 『화한역어』의 釋天·釋親·釋女에 수록된 표제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미 범주가 해당 유목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거의 상응하고 있다. 이는 『고금석림』의 기타 편의 의미 관계의 상응도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徐志學(2024)에 따르면 『별국방언』 중 ①유목과 속성이 직결되는 경우로 ‘釋親’의 娣(여자), 媼(어머니), 崽(아들), 媪(여자), 媵(잉첩), 婬(배우자), 倩(사위)이고, ②의 미상 간접적인 경우로, ‘釋藥’의 眠(약의 독성), 毒(약의 독성), 癩(약의 독성), 眩(약의 독성), 癆(약의 독성)등처럼 약을 먹은 뒤의 증상에 관한 어휘가 있다. 그러나 ③‘釋親’에 수록된 娥(아름답다), 嫵(아름답다), 媯(아름답다), 姣(아름답다), 姝(아름답다), 姪(아름답다), 悼(슬퍼하다), 慙(성급하다), 忤(흠족하다), 謫(꾸짖다), 嘍(즐기다), 眦(부끄러워하다), 媿(미워하다), 嘖(불쌍히 여기다), 慊(망자하다), 揣(재다) 등은 친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표제어들이다.

이처럼 유목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표제어의 귀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 책의 근본적인 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화한역어』의 유목 분류 체제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釋天·釋親·釋女에 수록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유목의 속성과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화한역어』의 자류별·유목별 분류체제와 수록자의 배열이 사전의 기초적인 형태를 구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유목의 수량 방면에서, 『화한역어』는 기존의 『이아(爾雅)』의 19항목에서 65항목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 사회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화한역어』 3편의 표제어와 유목의 의미 속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상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釋天’에 수록된 ‘喝風(바람을 마시다→굶주리다)’·‘趁早(일찌감치 하다)’·‘害風(바람을 쐬다)’·‘風頂住(바람에 가로막히다)’ 등 표제어는 ‘風’자로 조어된 것일 뿐, ‘釋天’의 기본 속성과는 거리가 있다. ‘釋女’에 수록된 ‘行房(행방)’도 그 귀속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어휘들은 ‘釋事(일)’에 귀속시켜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화한역어』 3편의 표제어와 유목의 상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별국방언(別國方言)』편의 동일한 세 유목은 불일치가 높은 현상을 보인다. 즉 『고금석림』 각 편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금석림』 전편의 유목을 대상으로 그 의미 속성을 확정함과 아울러 불일치하는 표제어의 귀속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후속 과제로 미룬다.

## ■ 참고문헌

- 최세진(1527), 『훈몽자회(訓蒙字會)』, 규장각(한은 169).
- 교서관(1763), 『노걸대신석언해』, 서울역사박물관.
- 김경준(1690)등, 『역어유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3-598).
- 김창조(1765), 『박통사신석언해』, 규장각(가람古 495.1824-C456b- v.1).
- 사역원(1670), 『노걸대언해』, 규장각(奎2044-v.1-2).
- 변섭(1677), 『박통사언해』, 규장각(奎貴1810-v.1-3).
- 홍철(1775),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K3-598).
- 이의봉(1789), 『고금석림』, 용재문고본; 규장각본(奎 12253), 〈古 3916-1〉).
- 이기문(1977), 『『古今釋林』 解題』, 『古今釋林』 1, 아세아문화사.
- 김형태(2007), 『『고금석림』 해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 해제 7』, 평민사.
- 竹越 孝(2011), 『『語録解』と唐話辞書—『語録解義』との比較を通じて—』, 古代文字資料館発行 『KOTONoha 百号記念論集』.
- 강용중(2014), 「송유어록(宋儒語錄) 언어사전의 구상과 실제」, 한국사 전학 제24호, 한국사전학회.
- 徐志學·李景遠(2024), 『『別國方言』 詞語類目內涵及分類理據辨析』, 世界漢字學會第十屆年會論文集, 華東師大·慶星大漢字研究所.
- 김태우·도혜숙(2025), 『『華漢譯語(화한역어)』의 기초적 고찰』, 어문논역총간57집.
- Lee Kyeongwon, Gyudong, Y., Sujin, L. & K. Taewoo (2019), A preliminary study of the multilingual dictionary Gujin Shilin (Kokeum Seklim) of the Joseon Dynasty: Its compilation background, structure, content and value, Journal of Chinese Writing Systems 3(2).

❖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Attributes of Categories  
in Hwahan Yeokeo (華漢譯語)  
: Focusing on Seog-cheon (釋天), Seog-chin (釋親),  
and Seog-nyeo (釋女)

Toh, Hyesook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lexical classification system of Hwahan Yeokeo (華漢譯語) by analyzing the semantic relationships between each category (leimu, 類目) and its associated headwords. The goal is to clarify the semantic attributes of these categories and the degrees of correspondence among them.

While the categorical structure of Hwahan Yeokeo, known as the “Seog-○ (釋○)” type, was modeled after the nineteen sections of Erya (爾雅), it was expanded to sixty-five categories to accommodate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domains and the linguistic realities of the Joseon period.

This paper classifies the semantic relationships between each Category (類目) and its associated headwords according to hierarchical levels and examines their semantic correspondence. The findings reveal that most headwords correspon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mantic attributes of their assigned categories, although a small number show weak or subjective correspondence and may be better suited for reclassification under different categories.

Overall, this investigation highlights the lexicographical significance

20 비교문화연구 제76집(2025.10)

of Hwahan Yeokeyo and the intrinsic semantic characteristics of its categorical framework.

Keywords: Gogeum Seog-lim, Hwahan Yeokeyo, Category(類目), Semantic attribute, Correspondence

- 논문투고일 : 2025. 09. 10
- 심사완료일 : 2025. 09. 28
- 게재확정일 : 2025. 10. 07